

OR SCHEDULE FESTIVAL 2025

11.20—30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SSACC

1 **메테 에드바센**
페넬로페는 잠잔다

Mette Edvardsen
Penelope Sleeps

윈드밀
Windmill

2 **안 쥐랭**
환상의 해부학

Anne Juren
Fantasamical Anatomies

3 **안나 페어손**
산 짓기

Anna Pehrsson
Mountainbuilding

4 **마텐 스팅베르크**
나튼—홀딩 어 캐슬

Mårten Spångberg
Natten—Holding a Castle

엘디케이
LDK

5 **마텐 스팅베르크**
시대 끝에서의 환상

Mårten Spångberg
Mystic Truth

주렁주렁 영등포점
Zoolungzoolung

6 **알레한드라 폼보 수**
세 편의 영화

Alejandra Pombo Su
Three Films

엘디케이
LDK

7 **알레한드라 폼보 수**
드로잉들

Alejandra Pombo Su
The Drawings

8 **티노 세갈**
이 환희

Tino Sehgal
This joy

9 **조율**
실처럼 얇은, 펼쳐진 레이어

Joyul
Thin as Thread, the Layers Unfold

10 **김보용**
수의 감각

Kim Boyong
The Sense of Numbers

11 **호수**
사물, 멀리 떨어진, 충분히 가까운

HOSOO
Objects, Far Apart, Close Enough

12 **서영란**
쌀, 의식, 정령 ...

Suh Yeongran
Rice, Ritual, Spirits ...

13 **노은실**
태양이 시간을 마주할 때까지

Noh Eunsil
Until the Sun Faces Time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야외마당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710

주렁주렁 영등포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5, 5층

윈드밀
서울 용산구 원효로 13,
지하 2층

엘디케이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20길 8

	11.20	11.21	11.22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11.30
	19:00				19:00						
		11:00	10:00								
		17:00	13:00	12:00							
			19:00	18:00							
											14:00
						19:00					
								13:00–21:00			
								16:00	14:00	14:00	
									19:30		
										10:00	
										19:30	
											10:00
											18:30

**Seoul Street Arts
Creation Center (SSACC)
Outdoor Stage**
 710, Ahasan-ro,
 Gwangjin-gu, Seoul

**Zoolungzoolung
Yeongdeungpo**
 5F, 15, Yeongjung-ro,
 Yeongdeungpo-gu, Seoul

Windmill
 B2, 13, Wonhyo-ro,
 Yongsan-gu, Seoul

LDK
 8, Daesagwan-ro 20-gil,
 Yongsan-gu, Seoul

우리가 어렸을 적, 할머니는 몽상에 빠지지 말라고 했다. “환상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거든.” 그럴 때면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우리에게 속삭였다. “환상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닌 권리란다.”

환상은 알 수 없는 낯선 영토로 길을 열어준다. 어떤 이는 환상을 소원을 비는 일과 같은 것으로 여기지만, 그건 상상이 지닌 변혁의 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새로운 세계는 토론이나 협상으로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의 우물 옆에서 발견된다. 하지만 오늘날 요구되는 주의력의 형태나 소셜 미디어, 이머시브 아트, 오토픽션, 셀럽 문화, 심지어는 개인주의와 정체성의 상품화조차 모두 환상을 끝내는 데 복무한다.

우리는 오늘날 환상을 강탈당한 것일까? 현대 사회는 환상을 질식시키려 하는 것일까?

딸과 텔레비전 만화를 보고 나면 둘 다 지쳐버리고 만다. 리듬이 너무 빠르고, 정보의 물살이 너무 세서 환상이 생겨날 틈이 없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영화를 보고 난 뒤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모험을 떠나는 대신, 장면을 재현하는 데에 몰두한다. 정체성과 개인성에 천착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환상을 가질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환상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경제적 이득도 없다. 우리는 점점 더 인공적으로 변하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상하게도 동시에 사실주의에 집착한다. 세계의 사실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환상은 인스타그램 스토리 재료 정도로 축소되어 버린다.

공연예술, 더 나아가 예술 전반이 이와 같은 환상의 부패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것 아닐까? 시의성을 유지하고, 올바른 질문을 하고, 요구사항들을 충족하는 것에 몰두하느라 말이다. 살아있는 경험에 집중하고, 예술가 개인의 정체성을 홍보하고, 잘 팔리

My grandmother told us children to stop day-dreaming. *Fantasy is for the privileged*, she said. My mother shook her head and whispered, *Fantasy is a human right*.

Fantasy offers pathways into unsettling territories of the unknown. Some say it's synonymous with the fulfilment of wishes, but they are just afraid of the transformative power of imagination. New worlds won't arrive through discussion or negotiation but can be found next to the well of fantasy. Today, the attention economy, social media, immersive art, autofiction, celebrity culture—even individualism and the commodification of identity—labour toward the cessation of fantasy.

Have we been robbed of fantasy? Is fantasy something contemporary societies aim to suffocate?

After watching cartoons on TV with my daughter, we feel exhausted. The tempo is so high, the flow of information so intense, there's no space for fantasy. I discover that kids today re-enact films instead of using them to create their own adventures. In a reality fixed on identity and individuality, it seems we can't “afford” to fantasise. Fantasy isn't efficient or economically defensible. Strangely, although we live in a world that is increasingly artificial, it is at the same time obsessed with realism—keeping it real while reducing fantasy to desirable Instagram stories.

Do the performing arts, even art in general, suffer from the same decomposition of fantasy—preoccupied with being relevant, asking the right questions, and fulfilling requirements? Has art lost touch with fantasy, focusing instead on lived experience, marketing the artist's personal identity, and becoming a sellable brand?

Perhaps it is exactly in times of global crisis that we really need fantasy—that we ought to reclaim the right to fantasise, stave off populism, and rediscover hope.

는 브랜드로 거듭나는 동안, 예술은 환상과의 접점을 잃어버린 것 아닐까?

그러나 이러한 전 지구적 위기의 시기에야말로 우리에게 환상이 필요하다. 우리는 환상을 펼칠 권리를 되찾고, 포퓰리즘을 피해 다시 희망을 발견해야 한다.

환상은 자아의 표현이 아니다. 환상은 오히려 자아가 구성되는 틈 사이에서 새어 나온다. 환상은 미스터리가 머무는 장소로 길을 내어준다. 환상도 예술도 소통을 의무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소통되고 전달되지 않는 것들로 인해 상상이 촉발되고, 새로운 길이 생겨나고, 세계들이 만들어진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소통하지 않는 예술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정확히 그 반대다. 예술은 그 자체로 무언가가 될 수 있는 힘을 지니며, 환상은 관객에게 단서를 주거나, 질문을 던지거나, 도덕적 방향성을 지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비로소 존재한다.

올해 옴/신 페스티벌은 환상에 몰두한다. 작품을 통해 지금의 세계와 그 시공간을 지워내고, 관객을 각자만의 무형의 모험으로 이끄는 예술가들에게 집중한다. 매체와 형식의 다양성을 정치적 저항으로 삼는 작품, 혼자든 함께든 현실에서 벗어나 부드럽고, 때로는 야생적이며, 압도적인 상상의 여정을 떠나는 예술 작품을 선보인다.

Fantasy isn't an expression of the self; it leaks through the construction of personhood. It is an access point to the places where mystery resides. Neither fantasy nor art is obliged to communicate. It is, instead, precisely because of what isn't transmitted that our imagination starts to spin, carve its own paths, and create worlds. Some say, *Art that doesn't communicate is nothing*. On the contrary: art is something, and fantasy exists precisely because it doesn't give the spectator clues, ask questions, or tell us how to calibrate our moral compass.

This year, Ob/scene Festival devotes itself to fantasy and to artists who, through their work, let us forget the world, time, and space, and take off on our own immaterial adventures. Ob/scene presents art that—through different media and formats, as forms of political resistance—unlocks doors for us, as individuals and collectively, to leave reality behind and take imagination for a gentle, wild, perhaps overwhelming ride.

페넬로페는 잠잔다

Penelope Sleeps

메테 에드바센의 이 실내악 오페라에서 주인공은 시간을 유예한다. 주인공 페넬로페는 계속해서 결정을 유예하는데, 이는 그가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사유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는 특별하지만 동시에 일상적인 것들을 떠올리고 기억한다. 그 과정에서 노래와 음악을 통해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 떠오른다. 관객들은 눈을 감고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사유들을 맞이하도록 초대받는다.

2019년 쿤스텐페스티벌의 위촉으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이번 옴/신 페스티벌에서 무용수이자 퍼포머인 서영란의 번역과 소리 예술가인 노은실의 음악과 노래로 재해석된다.

이번 오페라는 전통적인 무대가 아닌 모닥불 주위에서 공연되며, 서서히 밀려드는 어둠과 별이 우리를 꿈과 잠으로 이끌 것이다.

In Mette Edvardsen's chamber opera the protagonist suspends time. Penelope postpones decision making, a strategy that makes her autonomous and able to contemplate freely. She recalls and remembers, remarkable yet ordinary things, allowing what to come emerge through singing and musical elements, inviting the audience to in their turn close their eyes and let thoughts arrive uninvited.

The 2019 opera, commissioned by Kunsten-festivaldesarts, will for Ob/scene festival be re-produced in Korean translation by the dancer and performer Suh Yeongran, with music and singing interpreted by the sound and voice artist Noh Eunsil.

The opera will be presented in an unconventional setting, outdoors around a campfire, letting the approaching darkness and the stars guide us into dreaming and sleep.

메테 에드바센과 마테오 파지온의 오페라

텍스트

메테 에드바센

번역

이경후

음악

마테오 파지온

퍼포머

서영란, 노은실

공동제작

카이트아트 & 퀸스텐
페스티벌데자르(브뤼셀),
BUDA(코르트레이크),
블랙 박스 테아터(오슬로),
테아테르후세트 아방 가르덴
(트론헤임), BIT 테아테르
가라세엔(베르겐), 상트르
코레그라피크 나시오날 드
강 노르망디, apap-퍼포밍
유럽 2020-유럽연합

크리에이티브 유럽 프로그램
공동 지원 프로젝트

후원

노르스크 쿨투르로드,
노르웨이 예술연구 프로그램
—오슬로 국립예술아카데미

메테 에드바센은 오슬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안무가이자 무용수, 예술가다.
공연 작품 뿐만 아니라
〈오후의 햇살 아래 시간이
잠들었네〉 등의 프로젝트로
국제적 인정을 받았다. 현재
오슬로 미술아카데미에서
박사과정을 마무리하고 있다.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야외마당

11. 20 목 19:00 / 11. 24 월 19:00

30,000원 / 60분 / 오페라 / 한국어

Seoul Street Arts Creation Center Outdoor Stage

11. 20 Thu 19:00 / 11. 24 Mon 19:00

30,000 won / 60 min / opera / Korean



Courtesy of the artist

An opera by Mette
Edvardsen & Matteo Fargion

Text

Mette Edvardsen

Translation

Kathy Kyunghoo Lee

Music

Matteo Fargion

Performed by

Suh Yeongran, Noh Eunsil

Co-production

Kaaitheater & Kunsten-

festivaldesarts (Brussels),
BUDA (Kortrijk), Black
Box teater (Oslo),
Teaterhuset Avant Garden
(Trondheim), BIT
Teatergarasjen (Bergen),
centre chorégraphique
national de Caen in
Normandie (Caen), apap-
Performing Europe 2020—a
project co-funded by the
Creative Europe Programme
of the European Un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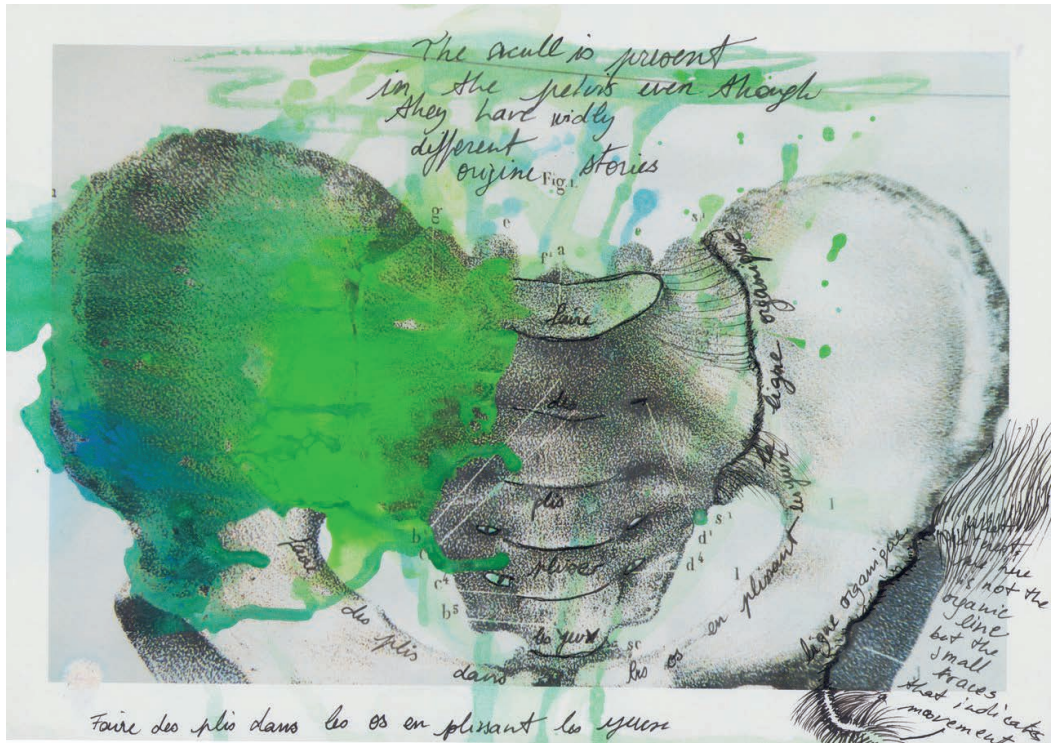
Supported by

Norsk Kulturråd, Norwegian
Artistic Research
Program—Oslo National
Academy of the Arts

Mette Edvardsen is a chore-
ographer, dancer and artist
living and working in Oslo.
Next to her performances
her project Time has fallen
asleep in the afternoon
sunshine has gained inter-
national recognition. She is
currently finishing her PhD
at the art academy in Oslo.

환상의 해부학

Fantasamical Anatomies



윈드밀**11. 21 금 11:00 / 11. 22 토 10:00****15,000원 / 60분 / 강령희 / 한국어**

환상은 어디에 있을까? 오직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몸과 장기, 혹은 우리 너머 어딘가 깊은 곳에 있는 것일까? 프랑스 안무가인 안 쥐랭은 그녀가 안내하는 일련의 체험을 통해 환상이 떠오르는 장소들을 탐색하고, 불가능한 해부학을 시도하며, 생명 시스템이 사물과 물질과 만나는 지점들을 살핀다. 어쩌면 생각하는 사물이 됨으로써 우리는 기존의 관계와 삶의 조건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관객은 안전한 공간으로 인도되어 누운 상태에서 서 홀로, 또 함께, 이해와 의식, 그리고 인격이 흐려지고 새로운 형태로 변모하는 지대에 진입하게 된다.

작품은 가이드에 의해 한국어로 이뤄지며 이후 경험을 나누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Windmill**11. 21 Fri 11:00 / 11. 22 Sat 10:00****15,000 won / 60 min / dance-seance / Korean**

Where is fantasy located? Only in our minds, in our bodies and organs, or deeper beyond ourselves. The French choreographer Anne Juren explores, in her guided experiences, the sites from which the fantastic arise, anatomies that are impossible, the meeting points where life-systems merge with object and stuff. Is it perhaps, through becoming things that think that we can emancipate ourselves from established conditions of relating and living.

The audience will be welcomed to a safe space where they are alone and communally, while lying down will be guided towards realms where comprehension, awareness and personhood blur and take new forms.

The experience will be conducted in Korean language by a local practitioner and will be followed by a conversation through which experiences can be shared and given space.

콘셉트 및 글

안 쥐랭

번역

이경후

구현 및 가이드

김서지

안 쥐랭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동하는 프랑스 출신 안무가이자 예술적 연구자, 펠덴크라이스 실천가이다. 쥐랭은 자신의 작업을 통해 안무 개념을 확장하고자 한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에 도전함으로써 신체감각, 감각기관, 운동감각, 에로티시즘을 탐구한다.

Concept and text

Anne Juren

Translation

Kathy Kyunghoo Lee

Realisation and guide

Kim Seoji

Anne Juren is a French choreographer, artist-researcher and Feldenkrais practitioner living and working in Vienna, Austria. Juren seeks to expand the concept of choreography in her work. She explores the somatic, the sensory system, the kinaesthesia and eroticism by challenging the boundaries between the private and the public.

산 짓기

Mountainbuilding

〈산 짓기〉에서는 산의 움직임과 몸의 움직임이 만난다. 관객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의식, 시간, 존재 너머에서 지각 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안나 페어손과 한국의 무용수들은 세 시간 동안 움직임과 정적으로 이루어진 풍경을 만들어낸다. 그 위에서 현재와 태고의 시간이 공명하고, 덧없는 일시성은 지질 작용의 느낌으로 뒤덮인다. 〈산 짓기〉는 인간의 지평, 시간의 침식, 산이라는 존재에 관한 사려 깊은 성찰이다.

2024년 옴/신 페스티벌에서 성공적으로 공연을 올린 바 있는 안나 페어손은 올해 한국에서 활동하는 무용수들과 함께 라이브 음악이 연주되는 장시간 공연을 만든다.

In *Mountainbuilding*, the movements of the mountain and the body meet, along with the processes of human perception that operate beyond our understanding of consciousness, time, and existence. Over the course of three hours, Anna Pehrsson together with a group of dancers from Seoul shapes a landscape of movement and stillness, where the present interacts with the primordial, and the ephemeral is enveloped by the geologically slow. *Mountainbuilding* is a tender contemplation on the horizons of the human, the erosion of time, and the being of the mountain in the world.

After successful presentations during Ob/scene Festival 2024 Anna Pehrsson is for this year's festival working with a group of local dancers creating a new durational work with live music.

콘셉트 및 안무

안나 페어손

함께

고윤지, 김나영, 이도경,
이원호, 장연우, 정나원,
정해령, 조윤아

음악

남민오

〈산 짓기〉는 다음의 지원으로 제작되었다. 단스 이 외스트, 콘스트 이 외스테르예틀란드, 베르크스타드 콘스트할, 시시에이피, 벨드, 레지온 읍살라 단스우트베클링, 클라이밋 히스토리스 아트 인터벤션스, 롱 라이프 버닝/ ICI CCN 몽펠리에, 단스 이 베스테르보텐, 스웨덴 예술위원회 및 스웨덴연구소

특별 감사

아그니에슈카
드우고셰프스카, 다르코
드라기체비치, 마리에 팔린,
리누스 그라테, 안나 그리프,
마리아 세퍼, 안나 코크, 삼
베스테르홀름.

옴/신 포커스 협력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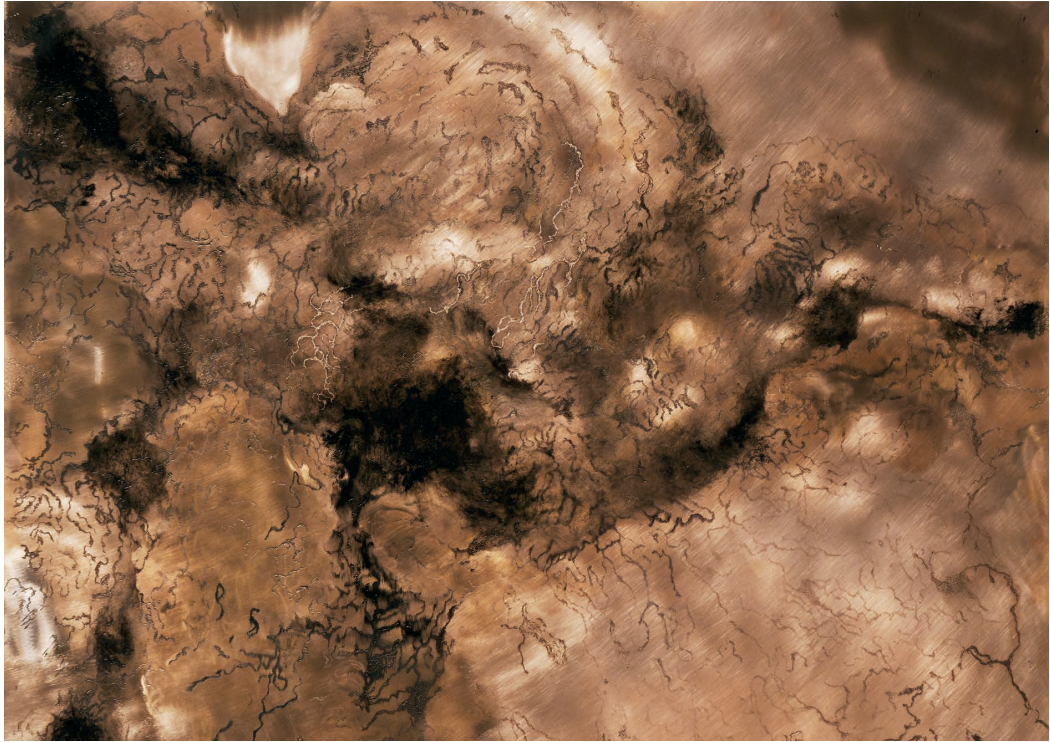
스웨덴 출신의 무용수, 안무가, 예술가인 안나 페어손은 춤, 안무, 시각예술의 교차점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지질학적 관점으로 움직임을 탐구하고 있으며 신체, 물체, 사물이 한데 모여 장소를 형성하는 환경을 표현하고자 한다.

윈드밀

11. 21 금 17:00/11. 22. 토 13:00/11. 23 일 12:00
30,000원/180분/무용

Windmill

11. 21 Fri 17:00/11. 22. Sat 13:00/11. 23 Sun 12:00
30,000 won/180 min/dance



© Thomas Zamolo

Concept and choreography

Anna Pehrsson

With

Ko Yunji, Kim Nayoung, Ee Dohgyoung, Lee Wonho, Jang Yeonwoo, Jeong Nawon, Jeong Haelyeong, Jo Yuuna

Music

MinOhrichar

Mountainbuilding was made possible through Dans i Öst, Konst i Östergötland, Verkstad konsthall, CCAP, Weld, Region Uppsala Dansutveckling, Climate Histories Art Interventions, Long Life Burning/ICI CCN Montpellier, Dans i Västerbotten, Swedish Art Council and Swedish Institute.

Special thanks

Agnieszka Dlugoszewska, Darko Dragičević, Marię Fahlin, Linus Gratte, Anna Grip, Maria Schäfer, Anna Koch och Sam Westerholm. Collaborated with Ob/scene Focus

Anna Pehrsson is a Swedish dancer, choreographer and artist active in the intersection of Dance, Choreography and Visual Arts. She currently explores movement from a geological perspective, seeking to articulate environments where bodies, objects and things coincide into place.

나텐—홀딩 어 캐슬

Natten—Holding a Castle

〈나텐—홀딩 어 캐슬〉은 밤 속으로, 야행의 기다림으로 떠나는 여정이자 상실의 시대에 연민을 되찾고자 하는 탐색이다. 작품에서는 어두운 이야기들과 두 무용수가 관객을 공유된 외로움으로 인도한다. 이곳에서 두려움과 황홀함은 한데 합쳐져 이름 없는 환상이 된다. 순간은 영원이 되고, 윤곽은 어둠의 파동으로 흐려지며, 움직임은 몽환적 취기에 녹아내리는 동상이 된다.

서울 관객에게 여러 차례 알려진 스웨덴의 안무가 마텐 스팅베르크는 여러 층위의 현실과 환상이 뒤섞이는 춤을 만들어 오늘날 정보 과잉 사회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을 마련한다. 〈나텐—홀딩 어 캐슬〉은 적극적으로 환상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정치적 저항의 형태가 될 수 있으며, 오늘의 기술 기반 사회는 자유롭게 환상하는 우리의 능력을 억압하고 있다는 주장에서 출발한다.

Natten—Holding a Castle is a journey into the night, into nocturnal waiting, and the search for compassion in times of dispossession. In parallel with a series of dark stories, two dancers escort the audience into the shared loneliness where fear and bliss fuse into fantasies without names. Here moments turn into eternities, contours fade into waves of darkness, movements become monuments that dissolve into gestures of somnambule intoxication.

The Swedish choreographer Mårten Spångberg, already familiar to the audience in Seoul, creates a dance in which layers of reality and fantasy remix, offering the audience a moments respite from the exuberant information intensity of contemporary society. *Natten—Holding a Castle* is a departure point arguing that active fantasy today is a form of political resistance and that society supported by technology is in a process of suffocating our ability of free fantasy.

콘서트 및 안무

마텐 스팅베르크

함께 만듦

박진영, 이민진

나레이션

김신우

함께

김애정

의상

헤인서

후원

스웨덴 예술지원위원회,
스웨덴 예술위원회, XING
볼로냐, PAF 생테름,
퀸스텐페스티벌데자르

특별 감사

아드리아노 W. 옌센,
린다 블롬크비스트,
에마 다니엘, 타마라
알레그레, 하나 에르드만,
루이세 달, 알렉산드라
트베이트, 엘세 투네미르,
시몬 아상시오, 마리카
트로일리

마텐 스팅베르크는 현재
베를린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웨덴 출신의 안무가다.
안무의 구조적 특수성에
관심을 두며, 춤과 글쓰기,
회화 중심의 시각예술을
아우르는 다원적 작품을
만든다. 서구 미학과
추출주의적 자본주의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비판으로서 확장된 의미의
생태학을 다루며, 동시에
예술의 문화화에 반대한다.
활발한 문화비평가로 여러
저서를 출간한 바 있다.

원드밀

11. 22 토 19:00 / 11. 23 일 18:00
40,000원 / 225분 / 무용 / 한국어

Windmill

11. 22 Sat 19:00 / 11. 23 Sun 18:00
40,000 won / 225 min / dance / Korean



Courtesy of the artist

Concept and choreography

Mårten Spångberg

With and by

Park Jin Young, Lee Minjin

Narration

Kim Shinu

With

Kim Aejung

Costume

HYEIN SEO

Made possible by the support of

The Swedish Arts Grants Committee, The Swedish Art Council, XING Bologna, PAF St. Erme and Kunstenfestivaldesarts.

Special thanks to

Adriano W Jensen, Linda Blomqvist, Emma Daniel, Tamara Alegre, Hana Erdman, Louise Dahl, Alexandra Tveit, Else Tunemyr, Simon Asencio and Marika Troili.

Mårten Spångberg is a Swedish choreographer working and living in Berlin. With an interest in the structural specificities of choreography his work is interdisciplinary spanning from dance and writing to visual media, in particular painting. Thematically his

work addresses ecology in an expanded sense confronting Western aesthetics's correlation with extractivist capitalism and simultaneously arguing against the ongoing culturalization of art. He is a diligent cultural critic and has published several books.

시대 끝에서의 환상

Mystic Truth



Courtesy of the artist

엘디케이

11. 30 일 14:00

무료 / 150분 / 강연 / 영어, 한국어

LDK

11. 30 Sun 14:00

Free / 150 min / lecture / English, Korean

환상이란 무엇이며, 오늘날 왜 중요한가?

이 세션에서 마텐 스팅베르크는 특유의 장난스럽고 일화적인 어조로 짧은 환상의 역사를 들려주며, 현대 자본주의와 인터넷, 그와 관련된 기술들이 어떻게 인간의 환상 능력을 적극적으로 억압하고 있는지 이야기한다. 그 과정에서 그는 이머시브 아트에 의문을 제기하고 오늘날 우리의 주의력 또한 하나의 상품이 되어버린 현상에 주목하며, 이를 통해 즉시성과 성찰 사이에 개입해 본다.

환상하는 행위는 반자본주의적 전략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안적인 형태의 관계, 돌봄, 삶이 떠오를 가능성을 열어낸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정치적 저항의 형태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What is fantasy, and why is it important today?

In this session, Mårten Spångberg, using his playful and anecdotal tone, elaborates a brief history of fantasy and outlines how contemporary capitalism, the internet and associated technologies are actively repressing the human ability to fantasise. Along the way, he raises questions about immersive art and the way our attention has become a commodity, offering an intervention between immediacy and reflection.

Can we therefore understand fantasising as a form of political resistance, not only as counter-strategies against capital but also, and more importantly, regarding the emergence of alternative and other forms of relating, caring and living?

통역

김신우

마텐 스팅베르크는 현재 베를린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웨덴 출신의 안무가다. 안무의 구조적 특수성에 관심을 두며, 춤과 글쓰기, 회화 중심의 시각예술을 아우르는 다원적 작품을 만든다. 서구 미학과

추출주의적 자본주의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비판으로서 확장된 의미의 생태학을 다루며, 동시에 예술의 문화화에 반대한다. 활발한 문화비평가로 여러 저서를 출간한 바 있다. 2024년부터 옴/신 페스티벌의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Translation

Kim Shinu

Mårten Spångberg is a Swedish choreographer working and living in Berlin. With an interest in the structural specificities of choreography, his work is interdisciplinary spanning from dance and writing to visual media, in particular painting. Thematically, his

work addresses ecology in an expanded sense, confronting Western aesthetics' correlation with extractivist capitalism and simultaneously arguing against the ongoing culturalization of art. He is a diligent cultural critic and has published several books. Since 2024 he has been the artistic director for Ob/scene festival.

세 편의 영화

Three Films



Courtesy of the artist

주렁주렁 영등포점

11. 25 화 19:00

10,000원/60분/영화 스크리닝/영어(자막 없음)

- 〈듣기라고 불리는 것〉, 2018, 27분
-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둘러싼다〉, 2023, 19분
- 〈이곳을 만지는 것이 전부다〉, 2025, 15분

작년 옴/신 페스티벌에서 목소리 작품을 성황리에 선보였던 알레한드라 폼보 수가 이번에는 최근 완성한 영화 삼부작을 선보인다.

이 삼부작에서 작가는 폭풍이 지나간 뒤 해변에서 일견 쓸모없는 조각들을 모으는 사람처럼, 이미지, 만남, 해소, 공간, 시간대를 모으는 수집가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는 숨겨져 있거나 잊혀진 연결들을 찾아 나선다.

자연과의 친밀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 영화들은 관객들이 자기만의 환상을 탐색할 수 있는 풍경으로 펼쳐진다. 단일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대신, 영화는 관객이 저마다의 이야기들을 끝없이 발견하고 들려줄 것을 제안한다. 그 이야기들은 어쩌면 시작도, 결말도, 해소도 없는, 우리의 정신없는 일상에서는 시간을 들여 자세히 들여다보거나 몰두하지 않을만한 그런 이야기들일 것이다.

알레한드라 폼보 수는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다양한 매체로 작업하고 있다. 수행적인 작업을 기반으로 하며 익숙한 매체에 비판습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 재료와 매체를 탐구할 때 '무엇' 보다는 '어떻게'의 질문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종종 고의적이면서도 우연적이고,

표현적이면서도 형식적이고, 속도감이 있으면서도 반복적인 이중성으로 가득한 작품을 만든다. 알레한드라 폼보 수는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 라 카사 엔센디다, CA2M, 폰테베드라 미술관 등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실천을 선보였다. 2025-2026년 베를린 DAAD 펠로우로 선정되었다.

Zoolungzoolung Yeongdeungpo

11. 25 Tue 19:00

10,000 won/60 min/screening/English (no subtitle)

- *It's Called Listen*, 2018, 27 min
- *What Looks at Me Surroundings Me*, 2023, 19 min
- *Touching Here is Everything*, 2025, 15 min

After successfully presenting her voice work, at this year's Ob/scene Festival, Alejandra Pombo Su now presents her recently completed trilogy of films.

Here, the artist functions as a collector of images, encounters, resolutions, spaces, and time zones—like someone gathering seemingly insignificant material on a beach after a storm, uncovering connections that for others remain hidden or forgotten.

These films, marked by a particular intimacy with nature, unfold like landscapes in which viewers are invited to explore their own fantasies. Instead of telling a single story, the films offer an invitation to each person to discover and narrate their own endless stories—perhaps without a clear beginning or end, perhaps without resolution—stories that our hectic lives often leave us no time to uncover or engage with.

Alejandra Pombo Su is a multidisciplinary artist living and working in Santiago de Compostela, Spain. Her practice is essentially performative, resulting in unconventional approaches to stable media and investigating material and medium in terms of how rather than what. This often produces works that are paradoxical, full of

contradictions that appear simultaneously deliberate and accidental, expressive and formal, hasty and repetitive.

Su's highly distinctive practice has been presented at institutions such as Museo Reina Sofía, La Casa Encendida, CA2M, and Museo de Pontevedra. In 2025-26, she is a DAAD Fellow in Berlin.

드로잉들

The Drawings



Courtesy of the artist

엘디케이**11. 27 목-11. 30 일 13:00-21:00****무료/퍼포머티브 전시****오프닝 11.27 목 14:00**

알레한드라 폼보 수의 영화와 더불어 옴/신 페스티벌은 낮부터 밤까지 지속되는 퍼포머티브 전시를 열어 작가의 드로잉 일부를 선보인다. 이 작은 구상 작품들은 작가의 일상적 실천이자 일기로 기능하며 성찰과 판단을 위한 작가 자신만의 방법론이다. 무언가를 재현하기보다는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내는 이 드로잉들은 거의 영적 실천에 가까운 헌신의 형태를 체화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드로잉 안에 담긴 상징들의 밀도와 서사 구조, 불가피하게 드러나는 관계성은 보는 이가 생성하는 것이지, 예술가가 의도를 담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드로잉들은 기존의 사회적 상상력에 첨언하는 대신, 새롭고 색다른 상상들이 자라나고 형성될 수 있는 세계들을 열어낸다.

LDK**11. 27 Thu-11. 30 Sun 13:00-21:00****Free/performative exhibition****Opening reception 11.27 Thu 14:00**

Parallel to the presentation of Alejandra Pombo Su's films, Ob/scene Festival hosts a four-day performative exhibition featuring a fragment of the artist's drawings. These smaller, figurative works function both as a daily practice or journal and as a personal method of reflection and evaluation. They also embody a form of commitment—almost a spiritual practice—concerned less with representation than with the possibility of an image emerging.

The symbolic density, narrative structures, and inevitable relations that appear in the drawings are thus created more by the viewer than deliberately imposed by the artist. Rather than commenting on an established social imaginary, the drawings open up worlds through which new and different imaginaries can grow and take form.

공연 시간 외 상시 관람 가능

Viewing is available at all times except during performance hours

이 환희

This joy

(이 환희)에서 티노 세갈과 무용수들은 베토벤의 음악에 몰두하며, 그 음악에 담긴 광휘를 신체적 조우로 번역해 낸다.

실러의 〈환희의 송가〉는 베토벤을 통해 생에 대한 찬가가 되었다. 환희로 가득 찬 그의 작곡은 현세의 것인 동시에 영적이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열려 있다. 티노 세갈은 베토벤의 여정을 따라가며 여섯 곡을 선택했고, 이를 노래로 새로이 편곡한 뒤 각각의 곡을 신체 한 부분을 위한 안무와 병치했다.

음악을 신체적 역동으로 전환하는 세갈의 작업은 관객이 서로 간의 조우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결말이 열린 성찰로 향하는 통로가 된다.

For *This joy*, Tino Sehgal and a group of dancers devote themselves to Beethoven's music, translating its radiance into physical encounters.

Schiller's *Ode to Joy* became a hymn to life through Beethoven, whose compositions—permeated by joy—are at once earthly, spiritual, and open to the unexpected. Sehgal follows this trail across six selected pieces, newly arranged with singing voices, each met by a choreography for a single body part.

Sehgal's translation of music into physical dynamics is at the same time an encounter for the visitors with each other and a portal to open ended contemplation.

엘디케이

11. 27 목 16:00/11. 28 금 14:00/11. 29 토 14:00
40,000원/240분/라이브 워크/영어(통역 없음)

LDK

11. 27 Thu 16:00/11. 28 Fri 14:00/11.29 Sat 14:00
40,000 won/240 min/live work/
English (no interpretation)

콘셉트 및 실현

티노 세갈

퍼포머

하나코 하야카와, 마르게리타
디아다모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티노 세갈은 독일,
인도계 예술가로, 물리적
오브제 대신 “구성된
상황”을 만드는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일시적이고 비물질적인
예술 작품은 사람들에게 의해
수행되는 안무된 조우이자,
대화, 노래다. 티노 세갈은

정치경제학과 무용을
공부했으며, 인간의 움직임,
언어, 상호작용 등을 재료로
삼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구겐하임 미술관이나 테이트
모던, 베니스 비엔날레 등
주요 예술 기관에서 작품을
선보였으며, 2013년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

Concept and realisation

Tino Sehgal

Enacted by

Hanako Hayakawa,
Margherita D'Adamo

Tino Sehgal is an artist
of German and Indian
descent, known for
creating ‘constructed
situations’—ephemeral,
immaterial artworks that
exist as choreographed
encounters, conversa-
tions, and songs enacted
by people rather than as
physical objects. He stud-
ied political economy and
dance, and his works, which

use human movement,
language, and interaction
as their artistic material,
have been exhibited at
major institutions like the
Guggenheim Museum, Tate
Modern, and the Venice
Biennale, where he was
awarded the Golden Lion
in 2013. Sehgal lives and
works in Berlin.

실처럼 얇은, 펼쳐진 레이어

Thin as Thread, the Layers Unfold

소리는 시간의 외연 속에서 펼쳐진다. 우리는 소리를 들지만, 동시에 소리는 동심원처럼 퍼져 나가며, 듣는 이가 머무르고, 성찰하고, 꿈꿀 수 있는 풍경이 된다. 콘서트는 소리가 그려내는 흔적을 따라갈 수도 있고, 우리를 숨 쉬게 해주는 인상들의 질감을 직조할 수도 있다.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한국의 실험 음악가이자 즉흥 연주자인 조율은 닥소폰과 전자음을 활용하여 청자가 빛나는 숲처럼 신비하면서도, 출근길 교통사고처럼 본능적이고 즉각적인 음향 환경에 몰입할 수 있게 한다.

이번 옴/신 페스티벌에서는 콘서트 형식의 공연을 선보인다. 듣는 이는 소리의 신체적 구현과 변주하는 공명들의 건축을 경험하게 된다.

Sounds unfold as extensions in time: we listen, but they also expand concentrically into a landscape where the listener can dwell, contemplate, and dream. A concert can trace a path drawn by sound, or weave a texture of impressions that allows us to breathe.

Seoul-based Korean experimental musician and improviser Joyul uses the daxophone and electronics to immerse the listener in sonic environments that are at once mystical—like radiant forests—and viscerally immediate, like a car crash in rush-hour traffic.

In the context of the Ob/scene Festival, Joyul presents a performance in the form of a concert: a listening experience that is both a bodily manifestation of sound and an architecture of transforming reverberations.

조율은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음악가이자 즉흥 연주자다. 조율은 소리와 언어, 세계가 관계 맺는 과정에서 생성된 편린들의 가능성에 관심을 두고 그들이 놓일 자리를 만든다. 또한 닥소폰 즉흥 연주자로서, 소리를 수행하는 신체, 그리고 연장된 신체로서의 악기가 라이브 현장의 시공간을

점유하는 광경을 관찰한다. 2021년 앨범 《Earwitness》를 발표했다.

Joyul is a musician and improviser based in Seoul. She focuses on the potential of fragments that emerge in the process where sound, language, and the world come into relation, creating spaces in which they can be situated. As a daxophone improviser, she observes the scene of the body carrying out the sound, and the instrument as an

extended body, are occupying the time and space of the live performance. Next to concerts and live performances Joyul released *Earwitness* in 2021.

엘디케이

11. 28 금 19:30

20,000원 / 60분 / 콘서트

LDK

11. 28 Fri 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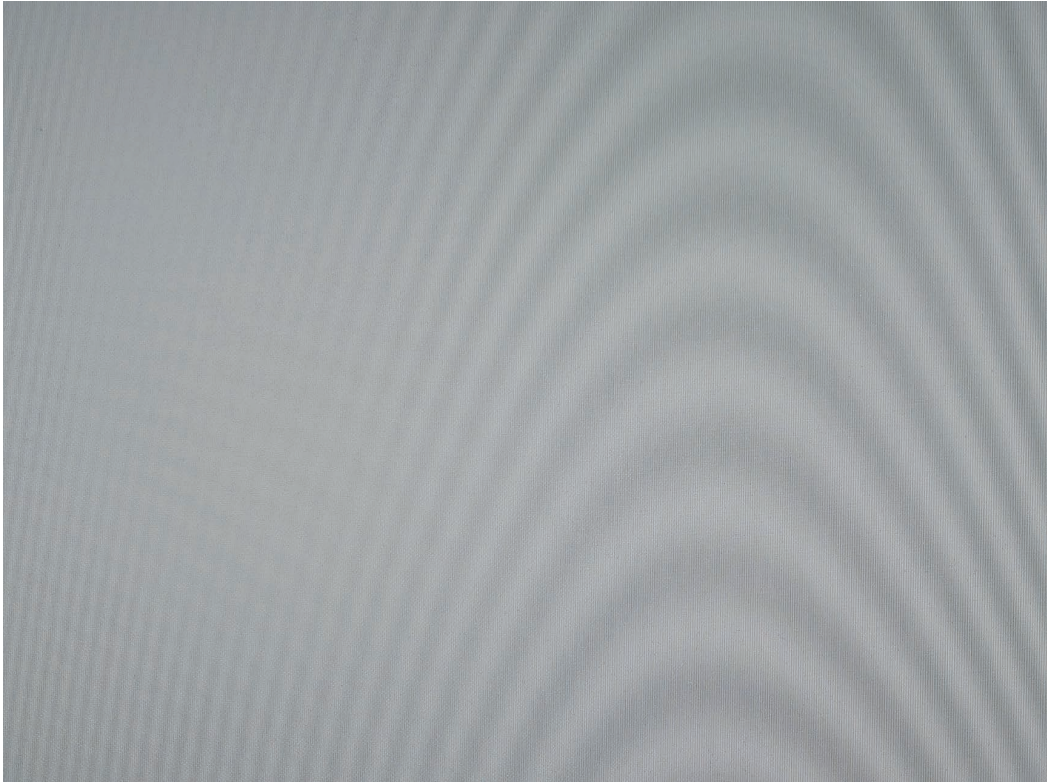
20,000 won / 60 min / concert



© Ha Taemin

수의 감각

The Sense of Numbers



Courtesy of the artist

콘셉트 및 가이드

김보용

함께 만들

김민지

서울에서 활동하는 김보용은
현존, 드러난 방식으로
감추어져 있는 것, 말할 수
없는 것, 내면을 무대로
다루고 이것을 공유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예술이
종종 선형적인 관계를 맺는
가치 체계와 자본주의는
김보용의 작품에서 영성과
무(無)의 공간을 거쳐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그는 이를 통해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 생태계를
탐구한다. 보지 않고 보기,
이미지 없이 경험하기, 재현
없이 존재하기 등 어두운
몸 안에서 초개인적으로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함께
연결되는 공성의 존재를
탐구한다.

엘디케이**11. 29 토 10:00****15,000원/약 120분/워크숍/한국어**

“나는 돈을 사랑한다. 수의 텅 빈 속성, 의미의 부재, 만질 수 없음, 진정 소유할 수 없는 불가능성을 사랑한다. 이 텅 빈 속성으로 돈은 거의 모든 것에 깃든다. 사물, 시간, 행동, 경험, 유형과 무형, 선과 악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곳으로 흐른다. 이러한 무차별성과 연결성은 자연과 사랑을 닮았다. 이제는 거의 순수한 추상이 된 돈, 수의 운동을 우리는 어떻게 감각하는가? 변화하는 자연의 모든 과정을 포용하듯이, 수의 모든 변화와 운동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이 워크숍은 당신의 계좌 속 숫자를 타인의 숫자와 함께 이동시키며, 그와 연루된 감각을 탐구한다. 하나를 갖는 것과 둘을 갖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한 자리수와 열 자리수는 어떤 차이를 만들어 내는가? 아주 잠시, 전에 가져본 적 없는 큰 수를 가질 수 있을까? 그 모든 것을 옆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 모두 0이 되어 볼 수 있을까? 0과 영원 사이에서 숨 쉬고, 움직이며 수와 새롭게 관계 맺을 수 있을까? 혹은 그 모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LDK**11. 29 Sat 10:00****15,000 won/approx. 120 min/workshop/Korean**

“I love money—its emptiness as mere numbers, its lack of inherent meaning, its untouchableness, its impossibility of being truly possessed. Through this very emptiness, money permeates almost everything: objects, time, actions, and experiences,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It flows everywhere, indifferent to notions of good or evil. In this way, its indiscriminate nature and connectedness recall that of the natural world—and of love. Now that money has become almost pure abstraction, how do we sense the movements of numbers? Just as we may embrace the changing processes of nature, might we also behold the changing flows and movements of numbers?”

This workshop explores the sensations that arise when the numbers in your account move together with those of others. How does having one differ from having two? What difference does a single digit make compared with ten digits? Can you, even briefly, hold a number so large you have never possessed it before? What would it mean to give all of it to the person beside you? Can we all, if only for a moment, become zero? Between zero and infinity, can we breathe, move, and discover new ways of relating to numbers—or perhaps even be free from them all?

Concept & guide**Kim Boyong****Fellow traveler****Kim Minji**

Kim Boyong is an artist based in Seoul. Through his practice, he takes an interest in presence, the hidden, the unspeakable, the inner stage and the possibility of sharing the ineffable. Art's often linear relation to value and capitalism is in Kim Boyong's work complexified through the engagement with spirituality and nothingness, exploring

alternative ecologies of mental, social and environmental relations. Seeing without seeing, experiencing without images, being without representation is in Kim Boyong's work, opening up for questions around transindividual life, simultaneously a dark body and a porous being connected and together.

사물, 멀리 떨어진,
충분히 가까운

Objects, Far Apart,
Close Enough



엘디케이

11. 29 토 19:30

20,000원 / 75분 / 콘서트

돌, 자몽, 버스표, 연기, 소리. 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즉 다른 사물과 다르지 않은 존재인 것처럼 여겨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듀오 호수(HOSOO)는 소리를 개체, 사물, 몸으로 간주하며, 그것을 인간의 선호에 따른 기존의 관계성으로 조직하려는 충동을 유예한다. 이러한 접근은 청자에게 특정한 경험을 하도록 유도하는 대신, 자신만의 관계를 형성할 자유를 열어낸다. 호수의 확장된 소리는 점진적이고 시간적인 지형들을 빚어내며, 낯선 공간과 신비로운 지표들을 만들어낸다. 이를 통해 소리는 분석, 성찰, 이성을 넘어 신체감각적인 차원에서 듣는 이에게 작용하기 시작한다. 두 연주자는 소리의 성질과 그 시간 너머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LDK

11. 29 Sat 19:30

20,000 won / 75 min / concert

A stone, a grape fruit, a bus ticket, some smoke, a sound. What happens if sound is treated as something existing, in principle, not different to any other object? The Seoul based duo HOSOO approaches sounds as entities, objects or bodies, postponing the temptation to organise them into established relations, arranging them according to human preferences. This approach offers the listener the liberty to form relations on his, her, or their own, instead of being promoted a certain experience. HOSOO's sound extensions establish gradual and temporal terrains, foreign spaces and mystical place holders, through which sound becomes somatic, acting on the listener beyond analysis, reflection or reason. The two instrumentalists reveal the nature of sound, the beauty of its timelessness.

호수는 백호현과 변웅수, 두 뮤지션으로 이루어진 앰비언트/실험 음악 듀오다. 정해진 규칙이나 목표 없이 서로 다른 장소에 대한 감각에 따라 즉흥적 협업을

이어간다. 2019년 LA 기반 레이블인 LINE에서 첫 음반 《Mist》를 발매한 후, 헬리콥터 레코즈에서 《SALT LAKE FM》을, 드래곤즈 아이 레코딩스에서 《Odyssey》를 발매했다.

HOSOO is an ambient/experimental music duo consisting of Baek Hohyun and Byun Woongsoo. Without fixed rules or goals, they pursue improvised collaborations, guided by their differing senses

of place. Since their debut release *Mist* (2019), on the LA-based label LINE, they have released *SALT LAKE FM* on Helicopter Records and *Odyssey* on Dragon's Eye Recordings.

쌀, 의식, 정령 — 참여형 읽기 의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식은 공동체의 일상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으며 존재 방식의 리듬을 형성하고 수호하는 다층적 역할을 수행했다. 정령 역시도 자원과 삶의 흐름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수호의 역할을 담당했다. 오늘날 고대의 의식들, 영적 실천들, 전통은 그 뿌리나 필요성과는 단절된 채 수행되며, 신자유주의적 셀프 케어라는 틀 속에서 소위 힐링 에너지로 표방되는 추상적인 형태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다.

〈쌀, 의식, 정령〉은 녹색혁명 이후 전통적인 쌀 농업이 사라져가는 현상에 대해 진행 중인 리서치로 초대한다. 이 프로젝트는 생산 조건의 변화가 어떻게 삶의 실천, 의식, 농부의 경험적 지식, 공동체 노동, 여성의 지위, 돌봄 노동, 공공재, 현지 동식물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지 탐구한다. 이 워크숍에서는 동남아시아 쌀의 여신 신화 속 제의적 죽음과 세속적 재탄생을 은유적으로 실천해 본다. 참여자들은 한때 다양한 쌀 농경 공동체에서 살아 숨 쉬었던 정령, 의식, 실천들의 사라짐에 관해 성찰하도록 초대된다. 이곳에 모인 이들은 미래 공동체의 새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상상해 보고, 인간 너머의 세계와 다시 연결될 수 있게 몸과 마음을 열어본다.

또한 함께 읽고 쓰는 실천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방법들을 탐구한다.

Rice, Ritual, Spirits — Participatory Reading Ritual

Until not so long ago, rituals were closely tied to the circumstances of daily life within communities. They served multiple roles, shaping and protecting the rhythms of existence. Spirits, too, were often practical guardians of resources and life-streams, woven into both individual and collective experience. Today, ancient rituals, spiritual practices, and traditions are often engaged with in ways detached from their roots and necessities, transformed into abstract forms that are said to carry healing energies within the frameworks of self-care under neoliberalism.

Rice, Ritual, Spirits is an invitation into ongoing research on the disappearance of traditional rice agriculture since the Green Revolution. This project reflects on how changes in conditions of production simultaneously transform life practices, rituals, farmers' knowledge, community labour, women's status, care labour, commons, and the relationship with local flora and fauna. In the workshop, practicing the allegory within South-east Asian rice goddess mythology, the sacrificial death and earthly rebirth, the group is invited to contemplate the erasure of once vital spirits, ceremonies, and practices across diverse rice agricultural communities. Together, we envision new stories of future communities, opening our minds and bodies toward reconnection with worlds more than human.

The workshop further explores methods of sharing knowledge and experience through collective reading and writing practices.

엘디케이

11. 30 일 10:00

15,000원 / 180분 / 워크숍 / 한국어

LDK

11. 30 Sun 10:00

15,000 won / 180 min / workshop / Kor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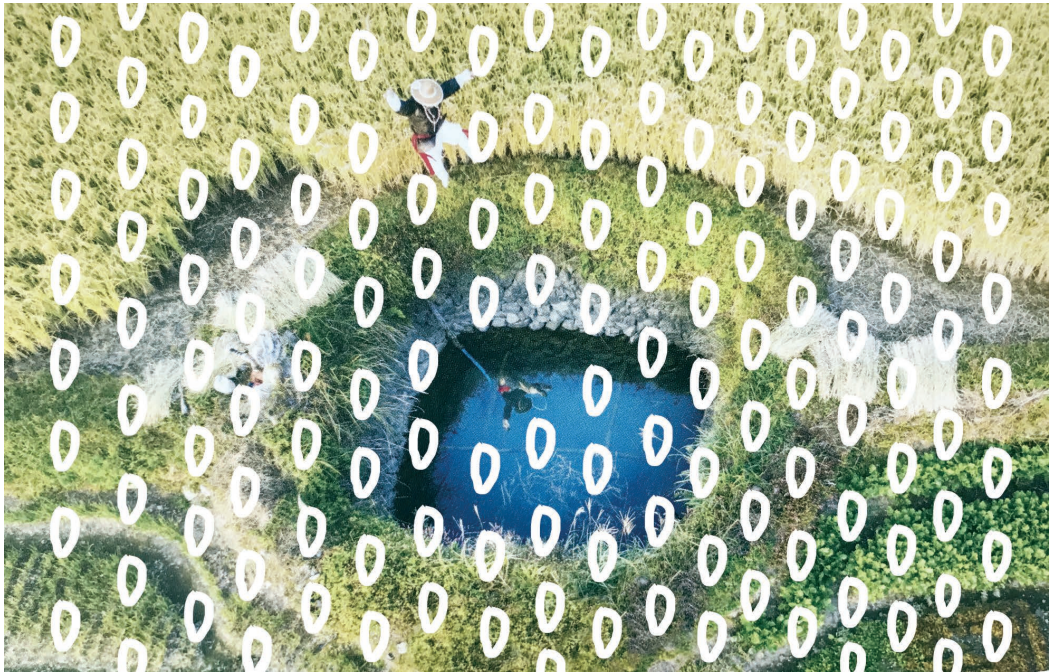


사진 © 고성농업기술센터 / 이미지 © 서영란

콘셉트 및 가이드

서영란

사운드 스케이프

주니퍼/릭

리서치 지원

7 ½ 프로젝트 (2020), 토른뷔
파크 스튜디오 (2023), 하우트
(2025)

서영란은 코펜하겐과
서울에서 활동하는
안무가이자 실천 기반의
연구자다. 자신의 인류학,
샤머니즘, 전통 무용 배경을
기반으로 다원적인 무용
공연을 만들고 있다. 상황을

만들어내는 일과 춤 사이에
자리 잡은 그의 작품은
유기적이고 신화적인
친밀감을 고대와 연결하여
보는 이에게 돌봄, 사회적
모성, 우정, 모임의 정치에
관한 행위자성을 안전한
공간에서 탐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기후 액티비즘
퍼포먼스 콜렉티브인 '비커밍
스피시즈'의 일원으로 글을
쓰고 워크숍을 진행하며,
복수종 생물, 전통적이고
생태주의적인 알, 집단
스토리텔링에 관한 퍼포먼스
작품을 만들고 있다.

Concept & Guide

Suh Yeongran

Soundscape

Juniper/Rik

Research support

7 ½ project (2020), Tårnby
Park Studio (2023),
Haut (2025)

Suh Yeongran is a choreog-
rapher and practice-based
researcher active in
Copenhagen and Seoul.
She creates multidisci-
plinary dance performances
based on her background
in anthropology, shaman-
ism, and traditional dance.
Between dance and creating

situations, Suh Yeongran's
work reconnects with the
ancient intimacies, with
the organic and mytholog-
ical, offering viewers and
participants a safe space
to explore their own agency,
in regard to care, social
mothering, friendship, and
politics of gathering. She
is a member of Becoming
Species, a climate activism
performance collective,
writes, guides workshops,
and creates performances
on multi-species 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 and
collective storytelling.

태양이
시간을 마주할 때까지

Until the Sun Faces Time



© 이정민 Lee Jung-min

엘디케이

11.30 일 18:30

20,000원 / 60분 / 콘서트

음악의 시간은 언제나 지금, 듣는 행위 속에 존재한다. 그러나 소리, 선율, 화음은 과거, 고대와 공명하고, 동시에 아직 오지 않은 흔적들을 예감한다. 우리는 음악을 통해 지금 여기에 존재하면서도, 아주 오래전 과거와 다가올 미래에 머무른다. 노은실은 판소리라는 전통과 현대의 음향 환경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을 이루며, 과거에서 떠오르는 꿈과 내일 이후에 도래할 날들의 기억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 전시, 의례, 콘서트, 제의, 친밀한 모임 사이에서 유동적인 형태를 띠는 그녀의 사운드 퍼포먼스는 듣는 이가 자신만의 영원으로 떠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환상이 연약한 식물들의 숲처럼 자라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옴/신 페스티벌에서 노은실은 자신의 가장 친밀한 형식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이는 가깝고, 즉각적이며, 기억과 희망의 대륙을 가로지르는 소리들이 인도하는 경험이다.

LDK

11.30 Sun 18:30

20,000 won / 60 min / concert

Music's time is always now, in the act of listening. Yet sounds, melodies, and harmonies simultaneously resonate with the past, with the ancient, while also anticipating traces still to come. Through music, we find ourselves here and now, long ago, and already in the future. Noh Eun-sil delicately balances the tradition of pansori with contemporary sonic environments, creating bridges between dreams arising from the past and memories arriving from the day after tomorrow. Her sound performances—unfolding as a fluid mixture of exhibition, ceremony, concert, ritual, and intimate gathering—open doors to the listener's own eternities, letting fantasies grow like a forest of fragile plants.

For the Ob/scene festival, Eunsil invites us into her most intimate format: one that is close, immediate, and carried by sounds that traverse the continents of memory and hope.

노은실은 목소리를 매개로 자신만의 예술적 언어를 만들어가는 판소리 퍼포머이자 보컬리스트이다. 목소리, 신체, 공간이 서로 맞물리는 무대 언어를 탐구하며, 판소리의 연극적·음악적 차원을 확장한다. 전통 형식을 재구성하여 소리와 움직임이 하나로 어우러진 몰입형 서사를 만들어낸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원재료로 한 시청각 실험과 즉흥적 협업을 이어가며, 관객이 그 에너지와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고 있다.

Noh Eunsil is a Pansori performer and vocalist shaping her artistic language through voice. She explores a stage language where voice, body, and space interact, expanding the theatrical and musical dimensions of Pansori. By reworking traditional forms, she creates immersive narratives where sound and movement

merge. Recently, she has pursued audiovisual experiments and improvised collaborations using the voice as raw material, creating spaces where audiences can experience its energy and beauty.

옵/신 페스티벌 2025

Ob/scene Festival 2025

예술 감독

마텐 스팅베르크

매니징 디렉터

구예나

책임 프로듀서

이용석

어시스턴트 프로듀서

김예솔비

홍보 마케팅 매니저

김지후

그래픽 디자인

슬기와 민

웹사이트 제작·디자인

민구홍 매뉴팩처링

서브 디자인

김국한

번역

김신우

기록물 촬영

플레이슈터

음향감독

임성열(파랑장 레코드)

인턴

김산, 김예나, 박서영, 박지인,

성무현, 손여울, 이승현,

이예솔, 임나희, 장예진,

정승민, 주소연, 최언영,

황유진

주최/주관

옵/신

후원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스웨덴 인스티튜트

공간 협력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윈드밀, 주렁주렁 영등포점,

엘디케이

2025년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축제(유망예술축제)

지원사업 선정 축제

Artistic Director

Mårten Spångberg

Managing Director

Ku Yena

Head of Production

Lee Yongsok

Assistant of Production

Director

Kim Yesolbi

PR & Marketing Manager

Kim Jihoo

Graphic Design

Sulki and Min

Website Design and

Development

Min Guhong Manufacturing

Sub Design

Kim Gukhan

Translation

Kim Shinu

Documentation

Playshooter

Head of Sound

Seongyeol Lim (Parangjang
Records)

Interns

Kim San, Kim Yena, Park

Seoyoung, Park Jiin,

Seong Muhyun, Shon Yeoul,

Lee Seunghyeon, Lee Yesol,

Lim Nahee, Jang Yejin,

Chung Seungmin, Joo

Soyeon, Choi Eonyeong,

Hwang Yoojin

Organized by

Ob/scene

Sponsored by

Seoul Metropolitan City,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The Swedish
Institute

Space Collaboration

Seoul Street Arts Creation
Center, Windmill,
Zoolungzoolung
Yeongdeungpo, LDK

2025 Seoul Emerging Arts
Festivals Supported by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ob-scene.com



WINDMILL

